

Painted Ladies

Caroline Walker



Painted
Ladies

Caroline Walker



Painted
Ladies

 KOLON

space k
art plus 

Painted La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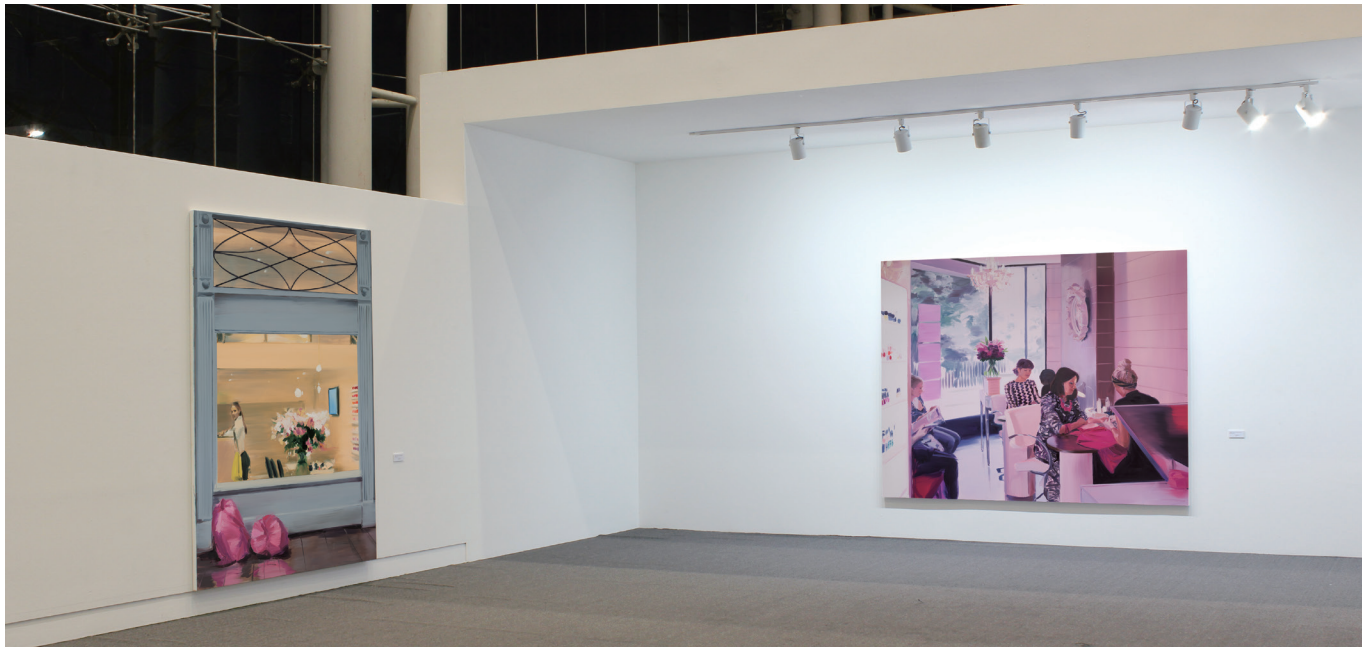
그려진 여인들

런던의 미용실 풍경을 묘사한 '그려진 여인들' 작업은 어디서나 흔한 거의 여성 위주인 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을 탐구하고 있다. 고객과 네일 관리사가 아주 가까워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친밀감을 고려하면 이 커뮤니티는 여성들이 단지 매니큐어 칠

만 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닌 어떤 사회적 잠재력이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네일 바의 창문을 통해 촬영된 스냅 사진이나 여성 고객들을 골 만한 디자인의 인테리어가 있는 살롱에서 좀 더 신중하게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진 이번 작업들은 이런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여성들에 관한 단순한 기록 이상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무언가가 그려지는 행위를 그리는 행위 자체가 미용 업계가 바라는 메커니즘과 행위로 나타나는 여성성에 대한 표현 안에서 일종의 역할 착시를 불러 일으킨다.

→캐롤라인 워커



완벽을 매니큐어하다 : 네일 바와 그 밖의 얘기들

지난 몇십 년 동안 영국의 대도시들에는 네일 바가 성행하게 됐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여성들에게 매니큐어 서비스를 해주는 살롱들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동유럽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많다. 이런 서비스는 효율성을 특징으로 해서 예약을 하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고객 조절을 잘 해서 네일 아트의 최신 유행이라는 특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가끔은 고객의 자잘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어떤 데는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곳도 있고 어떤 살롱은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도 있다. 고객이 와서 어떤 색을 칠할지 어떤 스타일의 모양을 원하는지 정하면 재빨리 정해진 코스로 모양을 다듬고 세부처리를 한다.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틀에 박힌 듯한 작업이 몰개인화의 느낌을 주면서도 희한하게 친밀감을 주기도 한다. 공장 생산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기계화된 움직임으로 손을 만지고 손가락을 쓰다듬는다. 하는 행동이나 웃도 모두 획일적인 네일 관리사들은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쓴 채 그들의 섬세한 작업에만 집중한다.

이것이 캐롤라인 워커의 최근 작업이며 여러가지 실내에서 여성의 표현을 탐구하는 지속적인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작가의 날카로운 분석은 접촉을 통해 고객과 매니큐어 관리사가 만나는 양자 간에 존재하는 침묵의 공간을 렌즈를 통해 관찰하고 있다. 말 한 마디 없이 그들은 자그만 도구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깎고, 갈고, 다듬고, 광택을 내는 마술 같은 변신 작업에 몰두한다. 작가는 대중의 측면 뒤에 서서 바깥에서는 차단되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취조하듯 훑어 나간다. 의자 주위로 테이블이 둘러 있고 작업을 돕기 위한 조명과 돌보기가 설치돼 있다. 매니저들은 고객의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하며 있는 듯 없는 듯 돌아다닌다. 가게의 외면도 갖가지인데 어떤 데는 복잡하고 멋 없이 화려한 반면 어떤 데는 넓직한 게 병원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공통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다. 꽃이나 식물은 테이블의 무미건조함을 깨고 주의가 분산될 포인트를 제공하고 질서 있게 줄지어 있는 나무 선반과 균형을 맞추며 색채 네일 바니쉬들은 단조로움을 깨고 있다.

몇 가지 다른 시선도 관찰되는데 어떤 그림에는 가게 윈도우를 틀로 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공간간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그림에서는 매니큐어 작업의 친밀성에 맞춰 있기도 하다. 'Beauty Box'에서는 강한 외관을 통해 따스해 보이는 안쪽을 들여다 보지만 곧 관객의 시선은 바깥으로 돌려진다. 'Pampered Manis'와 'Lacquered Up'에서는 안쪽의 활동 중심이 창 밖 외부 세계와 차단돼 있다. 'Nails and Brows'에서는 들여다 보는 걸 타는 듯한 눈빛으로 관객의 의도는 더욱 도전적으로 거부된다. 'Bombshell Nails'는 우리가 지나치는 것의 스냅샷을 보여주고 'Pampered Pedis'는 관리사의 근면성을 보여 그

방향이 역전된다. 뷰티 사진들이 실내에 여기 저기 붙어 있어 보는 관음적 즐거움을 드러내 주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이 사진들은 거기에 찍힌 실제 여인들에 대한 표상을 슬쩍 덮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누가 누구를 보는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각각 강한 대조를 보이는 톤으로 그려진 세 군데의 장소는 런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네일바들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조명을 밝힌 바들은 미래적 우주시대 같은 느낌을 던져 주고 이는 특히 'Passport to Happiness'와 'Bombshell Nails'에서 잘 나타나 있으며 'Treatment Chair'를 보면 관객의 시선을 '변신의 성지' 내부로 이끈다. 작가는 여전히 여러 세대의 여성들의 갈망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완벽한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든 가꾸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날카로운 고통도 견디는 여성들의 희한한 취미를 조롱하는 장치로도 이용한다.

작가의 몇 가지 주제 중 하나는 여성 전용 공간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루어 왔는데 그중 일부는 근사한 미국쪽의 장소도 있다. 그녀의 작업에서 또 중요한 하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의 여성성 구축이다. 양 측면은 영국의 인기 있는 거리에서 점차 하나 둘 생겨났고 모든 연령과 배경의 여성들이 찾는 흔한 네일 바라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탐구에서 서로 만난다. 또한 덧없는 듯한 자쫓빛이 서비스 행위를 감싸고 있는 'Lacquered Up'에서 잘 나타나듯 그 존재라는 게 미스테리와 이상한 미래적인 요소로 그려진다. 작가는 공중 목욕탕이라는 내밀한 공간에 관한 근작인 'Bathroom'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남을 드러내는 것으로 회귀했다. 특정 환경에 따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작가는 네일 관리를 받는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진 여성들간의 우연한 만남들을 렌즈에 담았다. 동시대적 사회 현상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이 발동된 작가의 작업은 여성들간의 만남에 대한 관객의 이해도를 더욱 깊게 하고, 그 만남은 어김없이 안락함, 온기, 사교성과 같은 불안정한 규약을 포함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작가의 시선은 시각적으로 거의 탐구된 바가 없으나 언론을 통해 인신매매와 같은 미심쩍은 행위들이 숨어있지 않은지 추측이 무성했던 사안으로 집중된다. 사회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암묵적인 거래로 인한 미스테리와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한 미적 의식의 일상성을 전달한다. 전세계적인 글로벌화를 반영하는 이런 네일 바는 부분적으로만 중첩되는 복수의 공간에서 근래 들어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 현상이다. 디지털 기술이 너무 만연해서 이제는 한물 간 인터넷 카페 같은 또 다른 문화 현상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서로 서로 붙어 앉아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바라보며 타인의 시선을 피한다. 네일 바처럼 방문객들은 오직 그 목적인 가지고 공동의 즐거움이나 사고 같은 것은 결여하고 있다. 이들은 요즘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힐링과 전인적 건강을 추구하는 산업과 뭔가 어울리지 않을까.

→리나 아리아

Painted Ladies

Painted Ladies

Depicting scenes from London beauty salons, the work in 'Painted Ladies' explores the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space of these ubiquitous female dominated environments. The intimacy of the treatments which place the client and nail technician in close proximity suggest the community and social potential of these spaces where women come not just to have their nails painted. Based on a combination of snapshots taken through windows of nail bars and more considered photoshoots at salons with interiors designed to entice their female client base, the paintings are intended as something more than simply a document of these spaces and the women that occupy them. The very act of painting this process of women being painted engages the role illusion plays in the aspirational mechanisms of the beauty industry and these performed tropes of femininity.

—Caroline Walker



Manicuring the perfect : Nail bars and other stories

The last few decades have seen the proliferation of nail bars in major cities in the UK and beyond, inviting women to get their nails manicured at affordable prices in salons run by migrant communities predominantly from South East Asia but also from Eastern Europe. These treatments specialise in efficiency and the mass market, intending to fit people in without appointments or waiting lists, so that they can enjoy the perks of the latest trends in nail art, which sometimes means that compromises have to be made about the time given to pampering. These types of salons vary, with some working to the ethos of brute efficiency whilst others have a more convivial ambience. Clients turn up, make choices of what colour and contour they want their nail styled, and are then subjected to a brisk routine of processes to shape and finesse. With minimal verbal communication, this formulaic transaction can be depersonalising and yet strangely intimate. Hands are touched and fingers stroked in mechanised movements that resemble factory production. Uniformed nail technicians, in manner and dress, don gloves and masks focusing solely on the intricacies of their practice.

This is the subject of Caroline Walker's latest body of work, a continuation of her ongoing interest in exploring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interiors. Her razor-sharp analysis looks behind the lens at the silent spaces existing between the two parties, customer and manicurist, as they meet through touch. With fingers splayed, women sit side by side looking down or sideways. In the stark absence of conversation they focus on the magical transformation enacted through the chipping, filing, brushing and polishing, with the flashing of the minute instruments of their craft. Walker gets behind the public façade to interrogate spaces that are not visible, even shut out, from the exterior. Tables are encircled with chairs and lit by lamps and magnifying devices to assist the workers. Managers loom spectrally in doorways monitoring the steady flow of clients. The shop facades vary; some are more gaudy and cluttered whilst others are more clinical and spacious. Common to these places is the combination of the natural with the artificial. Bouquets of flowers break up the sterility of tables, adding a point of distraction and, counterpoised with the ordered rows of wooden shelves, coloured nail varnishes splinter the monotony.

Different viewpoints are captured, some displaying inter-spatial relations between outer and inner, framed by the shop windows, while others home in on the intimacy of the manicure. In Beauty Box we glance into a warm interior, from outside a strong façade, but soon have our gaze averted by an insider. The converse happens in Pampered Manis and Lacquered Up where the inner hive of activity is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which remains on the other side of the window. The intrigue of the viewer is challenged more defiantly in Nails and Brows as we are punished for looking. Bombshell Nails gives us a snapshot of what we are missing, while

Pampered Pedis reverses the orientation as we witness the industriousness of the worker. Photos of beauty shots are scattered in interiors exposing the voyeuristic pleasure of looking and raising the question of where the gaze should fall. They also operate as a foil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real women portrayed, making us reflect upon who is looking at whom. The three places depicted, each rendered in strong palettes of contrasting tones, define the range and variety of these bars that are found in and around the streets of London. In their luminescence the bars take on a futuristic space-age quality, reflected particularly in Passport to Happiness and Bombshell Nails, with Treatment Chair leading the viewer to an inner sanctum of transfiguration. While taking seriously the pursuits of generations of women, the representations also operate to poke fun at the foibles of women who endure the sharp edge of pain in their desperate cultivation of the perfect self-image.

One of Walker's central themes is the representation of spaces that are almost exclusively occupied by women and she has explored this in different contexts, some of which are in glamorous stateside locations. Another interest key to her work is the construction of femininity in an epoch that emphasises the manufacture of a skin deep version of beauty. Both aspects combine in this exploration of the mundane, the everyday nail bars, that have increasingly popped up on British high streets and that are frequented by women of all ages and backgrounds but whose presence is rendered with mystery and the futuristic uncanny, typified in Lacquered Up where the action is shrouded in a purple evanescence. And like Bathhouse, a recent body of work that concerns itself with the intimate spaces of public baths, she returns to expose invisible encounters. Allowed different degrees of control depending on the specific environment, she casts her lens on the chance meetings between women with the common goal of getting their nails done. Piqued by her own anthropological curiosity of what is being offered, Walker's work deepens the viewer's understanding of encounters between women, which invariably involves destabilizing conventions of cosiness, warmth and sociability. With this new body of work Walker's view falls on a subject little explored visually but rife with speculation in the media about the subtext of trafficking and the louche. She conveys the regularity of these beauty rituals that are tinged with mystery, discomfort even, by the silent transactions that occur in social spaces. Reflecting globalization, these nail bars are recent offerings of cultural exchange in plural spaces that only partially overlap. They strangely resemble another cultural phenomenon, Internet cafés, rendered redundant by the ubiquity of digital technology. Here too people nestle side-by-side looking into virtual space, quick to avoid the gaze of the individual facing them. Like these nail bars, visits are only ever purpose-laden and are lacking in shared pleasures and sociability. They belong to the continually increasing therapeutic industries that seek to heal and make w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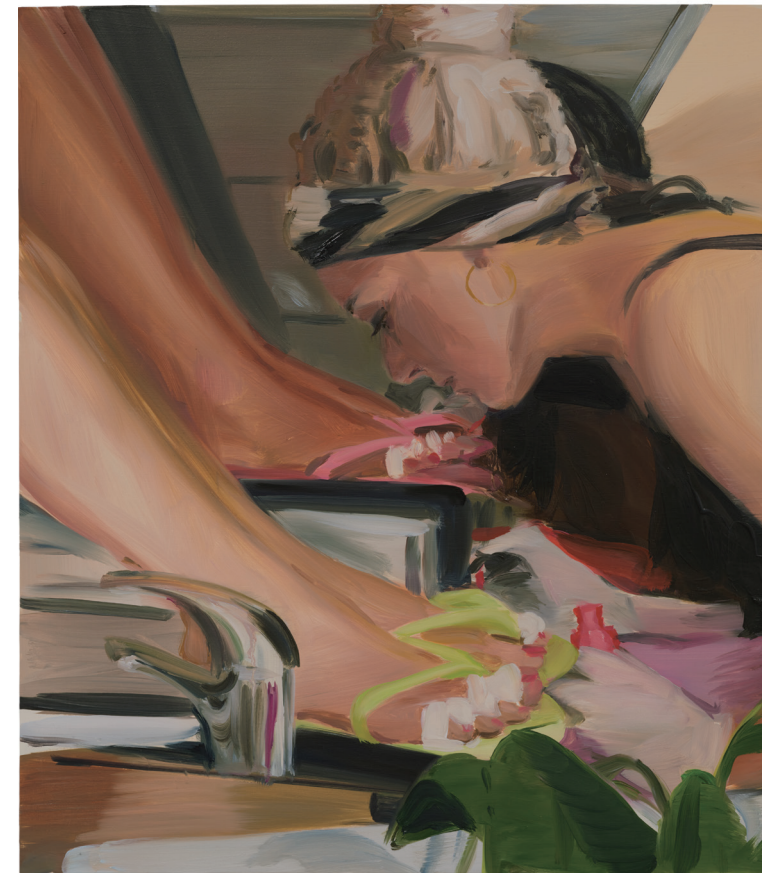
—Rina Arya



Installation View



Runway Ready
oil on board_52x42cm_2016



Recessionista
oil on board_55x48cm_2016

Lacquered Up
oil on linen_162x139cm_2016





Gallery Gal
oil on board_55x45cm_2016



Birds of Paradise
oil on board_55x45cm_2016

Bombshell Nails
oil on linen_165x235cm_2016





Pampered Pedis
oil on linen_145x200cm_2016



Nails and Brows
oil on linen_218x160cm_2016

Pampered Manis
oil on linen_190x240cm_2016





Beauty Box
oil on linen_180x240cm_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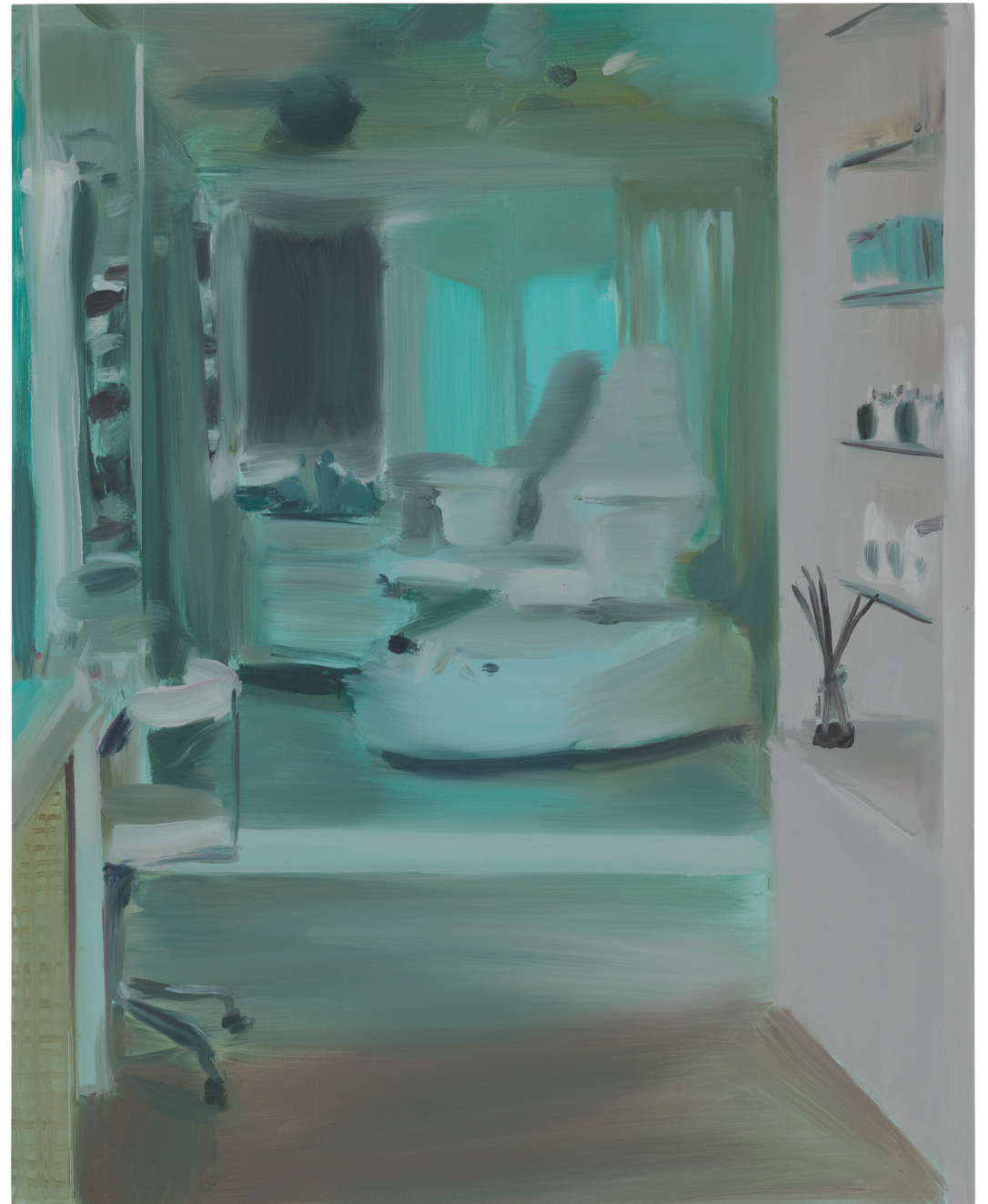


Passport to Happiness
oil on linen_105x82cm_2016



Turquoise and Caicos
oil on board_50x40cm_2016

Treatment Chair
oil on board_50x40cm_2016





Installation View

CAROLINE WALKER

(born 1982, Dunfermline, Scotland)

EDUCATION

- 2007-2009 MA Painting, Royal College of Art, London
2000-2004 BA(hons) Painting, Glasgow School of Art

SOLO EXHIBITIONS

- 2017 Painted Ladies, space k, Gwacheon, South Korea
ProjectB Gallery, Milan
- 2016 The Racquet Club, Grimm Gallery, Amsterdam
- 2015 Bathhouse, space k, Seoul
- 2014 Set Piece, ProjectB Gallery, Milan
- 2013 In Every Dream Home, Pitzhanger Manor Gallery, London
Glass to the Wall, ProjectB Gallery, Milan
- 2011 Vantage Point, Ana Cristea Gallery, New York
- 2010 Anonymous Was a Woman, Ivan Gallery, Bucharest
The Valerie Beston Artist Trust Prize Winner, Marlborough Fine Art, Lond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7 Women Artists: A Conversation, The Fine Art Society, London
Currents, Lin & Lin Gallery, Taipei, Taiwan
- 2016 ProjectB 10, ProjectB Gallery, Milan
Valerie Beston Artist Trust Prize: First Decade, Marlborough Fine Art
A Question of Perspective, Grimm Gallery, Amsterdam
- 2015 The London Open 2015, Whitechapel Gallery, London
Reality: Modern and Contemporary British Painting, Walker Art Gallery, Liverpool
- 2014 Reality: Modern and Contemporary British Painting, Sainsbury Centre for Visual Arts, Norwich
- 2013 Nightfall: New Tendencies in Figurative Painting, Galerie Rudolfinum, Prague
- 2012 Part of a Collection: OUTSET/RCA Acquisitions 2009-2011, Royal College of Art, London

- 2012 Nightfall: New Tendencies in Figurative Painting, MODEM Centre for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Debrecen, Hungary

- 2011 Some Domestic Incidents: An Exhibition of New Painting from Britain, MAC, Birmingham
Expanded Painting: Some Domestic Incidents, curated by Matt Price and Charlie Levine, Prague Biennale 5

- 2010 SV10, Studio Voltaire, London

- 2008 Jerwood Contemporary Painters, Jerwood Space, London

- 2006 John Moores 24, Walker Art Gallery, Liverpool

AWARDS

- 2010 Shortlisted for Threadneedle Prize
- 2009 Valerie Beston Young Artist Award, Royal College of Art
Neville Burston Award, Royal College of Art
Tom Bendhem Drawing Prize, Royal College of Art
- 2008 Jerwood Contemporary Painters
Dewar Arts Award
NADFAS Bursary, Royal College of Art

COLLECTIONS

- ING Bank, Netherlands
Akzo Nobel, Netherlands
Ekard Collection, Netherlands
Saatchi Collection, London
OUTSET/RCA acquisitions, Royal College of Art, London
The Franks-Suss Collection, London
Jimenez-Colon Collection, Puerto Rico
Shetland Islands Council

PUBLICATIONS

- 'Vitamin P3', Phaidon, London 2016
'Reality: Modern and Contemporary British Painting', Exhibition Catalogue for Sainsbury Centre of Visual Arts, Norwich, 2014
'A Brush with the Real: Figurative Painting Today', Marc Valli & Margherita Dessanay, Laurence King Publishing, London, 2014
'Caroline Walker: In Every Dream Home', Ed. Matt Price, Text Jane Neal, Marco Livingstone, Matt Price, Anomie Publishing, Wakefield, 2013

Painted Ladies

Caroline Walker

스페이스K_과천 2017. 02. 06 – 03. 31

space k_gwacheon February 06 - March 31, 2017

주최	코오롱	exhibition organizer	KOLON
행사진행	(주)코오롱 CSR사무국 이장욱, 황인성, 신사임	projecting planning	KOLON CORPORATION CSR Office Jang-Uk Lee, In-Sung Hwang, Sahim A. Shin
협력	(주)제너럴프로젝트	partnership	GENERAL PROJECT inc.
번역	최창호	translation	Choe Chang Ho
편집 디자인	Basecomm	editorial design	Basecomm
발행일	2017년 02월	date of issue	February, 2017

www.spacek.co.kr | info@spacek.co.kr

스페이스K는 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공간입니다.

● 스페이스K_과천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T. 02-3677-3119 F. 02-3677-3198 | 10:00-18:00 일요일 휴관

space k_gwacheon, 11, Kolon-ro, Gwacheon-si, Gyeonggi-do, Korea

● 스페이스K_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32 2F T. 053-766-9377 F. 053-766-9378 | 10:00-18:00 토·일요일 휴관

space k_daegu, 2F, 132, Dongdaegu-ro, Suseong-gu, Daegu, Korea